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마태 13,44)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 렘브란트

**[제1독서]** ..... 1열왕 3,5-6 7.7-12

**[화답송]** ..... 시편 119(118),57과 72.76-77.127-128.129-130

(◎ 97ㄱ 참조)

◎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 주님은 저의 몫이오니, 당신 말씀 지키기로 약속하였나이다.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냥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웁니다. ◎
-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애를 베푸시어 저를 위로하소서.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당신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이웁니다. ◎
- 저는 당신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모든 규정을 바르게 따르며, 저는 온갖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

- 당신의 법 하도 놀라워, 제 영혼 그 법을 따르나이다.  
당신 말씀 밝히시면 그 빛으로, 미련한 이들이 깨치나이다. ◎

**[제2독서]** ..... 로마 8,28-3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복음]** ..... 마태 13,44-52 <또는 마태 13,44-46>

##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44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45 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46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47 또 하늘 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48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 버렸다.

49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50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51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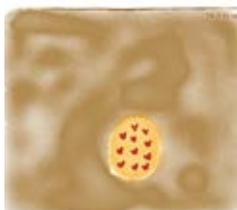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52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것도 꺼내고 옛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 그림 묵상

#### 마음속 보물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보물을 보았다면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내 마음 안의 보물을 주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사랑을 주어야  
다른 이의 마음속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마태 13,44)

〈임의준 신부 / 가톨릭 신문〉

### †복음 묵상

솔로몬은 하느님께 지혜를 받은 인물로, 사람들은 흔히 ‘지혜’ 하면 그를 떠올리고 성경이 전하는 그의 판결은 지혜의 예로 꼽힙니다(1역대 3,16-28 참조). 솔로몬은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는 하느님의 질문에 ‘듣는 마음’을 청하고 그것을 통하여 백성을 통치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청원은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가 ‘장수’나 ‘부유’나 원수를 없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랄 법한 것들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청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 그의 청원대로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같은 내용을 전하는 2역대 1,1-12를 보면 솔로몬은 하느님께 ‘지혜와 지식’을 받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마음은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두 이야기 사이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고 분별할 수 있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그의 지혜와 지식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와 분별하는 마음이 소중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서 오늘 우리에게 비유를 통하여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바로 ‘하늘 나라’입니다. 하늘 나라는 숨겨진 보물과 같고,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도 같습니다. 또 하늘 나라는 고기를 잡아들이는 그물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하늘 나라는 보물처럼 값지고, 값진 것을 찾아가는 상인처럼 역동적이며, 그물에 든 고기처럼 모든 사람을 모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서 공생활의 시작에 우리 안에서 활동하며 완성을 향하여 가는 하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선포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허규 베네딕토 신부)

##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마태 13,44)

렘브란트(Rembrandt, 1606-1669)는 네덜란드 출신 화가로 인간의 내면적 심리를 자신의 회화의 생명으로 삼았다. 그리고 인간이 겪게 되는 갈등과 번뇌, 사색과 신앙심 등을 주로 표현했다.

신앙적인 면에서 렘브란트는 성경 말씀을 그림의 소재로만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목상을 통해 말씀의 깊이를 헤아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말씀 안으로 삼입시켰다. 그가 1630년에 그린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는 마태오복음 13장 44절이 그 배경이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마태 13,44)

지폐가 없었던 고대 사람들은 금이나 은, 보석 같은 보물을 간직했고, 전쟁이나 위협으로부터 보물을 지키기 위해 땅에 묻기도 했으며, 주인을 잃은 보물은 기약 없이 땅에 묻히곤 했다.

그림의 오른쪽 뒤로는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듯 담쟁이덩굴이 무성한 성벽 입구가 보이고 왼쪽 뒤로는 넓은 평야가 멀리 펼쳐져 있다. 화면 중앙에 한 남자는 땅속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다. 화면 오른쪽에는 바닥부터 뒤쪽 깊숙이 파인 땅속에 금, 은그릇을 비롯해 다양한 귀한 물건들이 묘사되어 있다.

이 남자가 땅속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는 땅을 갈고 있는 고된 노동으로 땅 밑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오른손은 삽을 들고 있고 왼손은 거친 빈 광주리를 쥐고 있다. 남자의 오른쪽 위에는 물병과 음식을 넣는 광주리가 놓여 있다. 화가는 남자가 밭을 가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묘사함으로써 그의 노동의 시간을 표현하고 있다. 그의 수고와 땀이 하늘의 축복으로 밭의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 렘브란트

사실 이 그림에 표현된 남자의 얼굴은 화가 자신의 모습이다. 렘브란트는 신앙적인 면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말씀 안으로 삼입시켜 자신을 말씀의 주인공으로 묘사하곤 했다. 렘브란트는 그리스도를 조롱한 군인이 되기도 하였고, 십자가에서 내리는 예수님을 안고 있는 사람이 되기도 했으며, 아버지를 떠나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탕자이기도 했다.

이 작품에서도 렘브란트 자신을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보물을 발견하고 기뻐하기보다 긴장하며 주변을 살핀다. 두리번거리는 그의 모습은 이 밭의 보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순간 걱정하고 있는 듯하다. 그림 속에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진 형상처럼 그의 심리상태도 갈림길에 서 있다. 그가 바라보는 방향을 보면 보물을 발견한 기쁨으로 밝은 곳을 바라보지만 그 밭을 사기 위해 이제 가진 것을 다 팔아야 할 것이다.

**과연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 사려고 하는 보물은 무엇일까?**

(손용환 신부, 성경 미술관)

## 교황청 생명학술원,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모험 윤리’ 필요”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의 인간 공동체. 생명의 재탄생에 대한 유례없는 속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기의 여파에 대해 교황청립 생명학술원이 새롭게 발표한 공지의 제목이다.

교황청립 생명학술원은 지난 3월 30일 월요일 「전 세계적 질병 확산과 보편적 형제애」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 긴급 상황에 대한 공지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 공지를 냈다. 두 번째 공지의 핵심 원칙은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 윤리(ethic of risk)’의 개발** ▲**국제 협력 이행** ▲**책임 있는 연대 촉진** 등이다. 공지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한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공지는 이어 “인류 가족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생각과 행동의 회심이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생명학술원은 “(인간이) 나약하다는 교훈을 배운 것”이라고 대답했다. 여기엔 모든 사람, 특히 입원 환자들과 교도소 수감자 및 난민 수용소의 난민들이 해당된다. 아울러 이 교훈에서 나온 또 다른 가르침은 바로 ‘생명은 선물’이라는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돼 있다면서 △“지구(자연)에 대한 약탈” △탐욕과 과도한 소비에 기초한 경제적 선택 △“피조물에 대한 남용과 멸시” 등도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 국경을 초월하는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온 힘 합쳐야

생명학술원은 “국가들이 국경을 봉쇄하고”, 일부 국가가 “서로를 비난하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인간의 상호 의존성과 공동의 취약성”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고, 원조를 제공하고, 부족한 자원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시너지 효과”를 언급했다. 아울러 치료 및 백신의 개발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영역의 “조정 및 협력의 부재”는 코로나19 치료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학술원은 한편으론 코로나19 대유행이 부유한 나라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론 기본 자원이 부족하고, 종종 말라리아나 결핵과 같은 여러 치명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비싼 대가를 치른” 가난한 나라들 사이의 격차를 더 넓혔다고 강조했다.

### 보건 의료 정책은 보편적 인권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생명학술원 공지는 건강과 생명과 존엄이 큰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수반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 윤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살펴보지 않고 코로나19 대유행의 기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이러스가 더 빨리 확산된 상황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생명학술원은 “양질의 보건 의료 체계 및 필수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보편적 인권”임을 인식하도록 “전 세계적인 노력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과학적 연구는 책임 있고 자유롭고 공평해야

생명학술원은 “책임 있는 과학적 연구”, 곧 일체의 이해 상충에서 자유롭고, 자유와 공평과 평등의 규칙에 기반을 둔 완전한 과학적 연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회의 이익과 의료 부분의 공동선은 수익을 내기 위한 온갖 관심보다 우선합니다. 과학적 연구의 공공 차원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히 “유례없는 재앙에 직면한 가난한 나라들의 필요와 우려들”을 지원하는 세계 보건 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각자 자신의 역할을 다합시다

끝으로 생명학술원은 모든 사람,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동등한 존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연대의 증진을 희망했다. 아울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강조하면서, 그러한 까닭에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적 전략과 통합적인 민주주의적 실행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 “공동체는 서로 주의하고 상호 지원을 공유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지는 과거의 향수를 뛰어 넘는 “희망의 태도”를 갖추라고 초대하며 마무리했다.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 공존 프로젝트를 상상하고 구현할 때입니다.”



## ‘2020년 한인성소 기도의 날’ 안내 및 참가 희망자 조사

찬미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정 바오로 성당 모든 교우 분들의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부디 모두 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느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올해로 5회 째를 맞이하는 “한인성소 기도의 날”이 예정에 따르면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에는 교구 성소국과 상의하여 9학년 이상과 청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 속에서 개최 여부는 물론 구체적인 방식까지 불확실한 상황이기에, 학부모 여러분 및 학생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먼저 학생/학부모/청년들의 참가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자 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고 반드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행사 실시를 포함한 전체적인 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9월 27일(주일) 한인 성소 기도의 날 행사에 대하여 [아래 행사 초안](#)을 참고하시고 다음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행사를 준비하는 교구 성소국과 우리 본당의 봉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자녀 및 본인(학부모)의 참가 여부
2. 불참하시는 경우와 이유
3. 행사에 대한 우려 사항 등

학부모님들의 의견(학생 참여 여부)은 **각 학년 카톡방을 통해 7월 31일 (금요일)** 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학생들도 각 학년 선생님들을 통해 행사 홍보와 참가 권유를 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참가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강두영 암브로시오 신부

### Korean-American Vocation Day of Prayer Sunday, September 27, 2020

#### Young people (Rising 9<sup>th</sup> Graders – Young Adults)

11:30 a.m.	Registration
12:00 noon	Mass
1:00 p.m.	Lunch
1:30 p.m.	Activity/Ice breaker
2:00 p.m.	Talk
2:30 p.m.	Activity
2:50 p.m.	Seminarian testimony
3:05 p.m.	Q&A
3:20 p.m.	Head to Church
3:30 p.m.	Adoration/Reflection(Fr. Isenberg)/Praise & Worship
4:00 p.m.	Benediction/depart

#### Parents (Tentative)

11:30 a.m.	Registration
12:00 noon	Mass
1:00 p.m.	Lunch
1:30 p.m.	Break
1:45 p.m.	Talk in church(Korean Priest)
2:45 p.m.	Rosary
3:15 p.m.	Exposition
3:30 p.m.	Adoration/Reflection/Praise & Worship with Kids
4:00 p.m.	Benediction/depart

#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본당에서 지켜야 할 수칙

★아래의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일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 ▶ 가족이나 같은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 ▶ 2주 이내에 해외나 타주에 다녀오거나, 다녀온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2주 동안)
- ▶ 확진자가 발생했던 기관이나 장소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2주 동안)

## • 주일 미사를 자제해야 하는 경우

- ▶ 노약자 및 고령자, 임산부, 만성질환자, 어린이 등 면역에 취약한 사람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방송미사,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의무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링톤 교구의 모든 신자들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일요일과 의무의 날에 미사에 참석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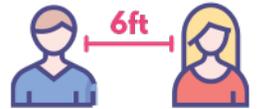
## • 성당 입장시 준수 사항

-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 **미사 참여자 명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 **손 세정제**로 손을 소독합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6FT)**를 준수해야 합니다.
- ▶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99.5°F 이상 입장 불가)



## • 성당 안에서 미사 거행 시 준수 사항

- ▶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6FT 간격 표시된 자리**에 앞자리부터 차례로 앉습니다.
- ▶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성체를 모실 때만 잠깐 벗습니다.)
- ▶ 성경과 성가집, 기도문 등은 공용이 아닌 **개인**의 것만 사용합니다.
- ▶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하고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 합니다.
- ▶ 봉헌이나 영성체 시에도 일정한 **개인 간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 영성체 전에 사제가 미리 '그리스도의 몸' 이라고 하면 신자들은 '아멘' 이라고 응답합니다.  
(**영성체 시에는 마음속으로 '아멘'을 합니다.**)
- ▶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마스크를 썼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서 합니다.
- ▶ 미사가 끝나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질서 있게 **즉시 성당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다음 미사를 위해 방역과 환기가 필요합니다.)



## • 일반 준수사항

- ▶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6FT), 손 씻기 및 소독의 생활화
- ▶ 성당 건물 안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합니다.
- ▶ 봉사자들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성당을 다녀간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시 즉시 성당에 알려야 합니다.



### 1 주일 미사 참여 신청에 대하여

- 주일 미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웹사이트의 **“미사 참여 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많은 분들이 미사 참여를 원하고 계시나 현재 미사를 자유로이 재개하기에는 결코 안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100명 이내로 제한**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미사 참여자 명단**을 작성해 놓아야 하고, 참여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에 사전 신청을 받고 추첨으로 100명씩 선정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성당 사무실(703-968-301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 평일 미사 재개

- 그동안 신자 없이 봉헌하던 **평일 미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 \* 화요일 : 오후 7시 30분
  - \* 수요일 : 오전 11시
  - \* 금요일 : 오후 7시 30분
- 평일 미사 참여자가 지켜야 할 수칙 또한 주일 미사와 동일합니다.
  - \* 마스크 착용 \* 거리 두기
  - \* 참여자 명단 작성 \* 발열 체크 \* 손 소독
- 보다 안전하게 미사를 함께 봉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한마음 기도 시간에 대하여

- 매일 밤 9시 한마음 기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본당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주모경 1번씩** 바쳐 주시고, 묵주기도와 나머지 기타 기도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 4 본당 웹사이트 적극 활용

- 코로나19 로 인해 자주 변경되는 상황을 본당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로도 보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온라인 봉헌**이 신설되었고,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본당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기 바랍니다.

### 5 유아세례 안내

-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정된 날에 합동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개별적**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합니다.
- **유아세례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3시에** 있으니 **사무실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성소후원회 공지사항

1. 2020년 '한인성소 기도의 날'안내 및 참가 희망자 조사
  - 참가 희망자 숫자를 미리 파악하고자 하오니 **7월 31일까지** 참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성소후원회 ☎ 703-403-1185

2. 본당 성소를 위한 미사와 묵주기도 그리고 후원금 모금

- 저희 본당에서도 2020년 가을학기부터 두 명의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가 사제 양성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성소후원회에서는 본당 신학생들과 성소를 위해 교우 여러분들과 **미사 참여 (매달 둘째 주 금요일)**와 **묵주기도**의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신학생들과 성소를 위한 후원회비와 후원금 모금**을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오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에서는 성소 후원회비와 후원금에 대해 연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산해 드립니다.)

▶ 온라인 봉헌 : 성당 홈페이지

**봉헌하기** > 봉헌종류 - '성소후원' 선택 > Pay Now

▶ 우편 봉헌 : 성당

체크 메모란에 '성소후원' 명기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마태 13,45)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해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면서까지  
차지하고 싶은

희망의 나라입니다.

(김혜선 아녜스)

## 2020-21학년도 하상 한국학교 정규학기 등록 안내

### 1. 입학 대상 (ADMISSION) :

유치부-1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K-12<sup>th</sup>)

### 2. 학사 일정 (ACADEMIC SCHEDULE) :

2020년 9월 12일-2021년 5월 22일

매주 토요일 (Every Saturday) 오전 9:30-오후 12:30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COVID-19 상황이 나아지면 대면 수업을 실시합니다.

### 3. 학비 (TUITION) :

등록비(\$50) 포함된 비용 (등록비는 환불 안됨)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400	\$380	\$360

#### <등록 취소시 환불 규정>

- 1) 수업 시작 일주일 전 취소 : 등록비 \$50을 제외하고 환불
- 2) 수업 시작 후 2주까지 취소 : 등록금의 50% 환불 (등록비 \$50 제외됨)
- 3) 수업 시작 후 2주 이후 취소 : 환불 불가

### 4. 등록안내 :

학비 또는 등록비 \$50과 함께 아래 방법으로 접수

- <https://forms.gle/Bwnw2L2pv8aG4Rxt5>
- 등록비 보내실 곳:  
**Hasang Korean School**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pay to order: Hasang Korean School)
- 등록마감 : **8월 15일**까지

### 5. 기타 :

- 문의 : 교감 김정선

☎ 571-217-8941

✉ [hasangkoreanschoolva@gmail.com](mailto:hasangkoreanschoolva@gmail.com)

###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17주 주간: 예레 26-29, 히브 13**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0년 7월 19일(연중 제16주일)

주일헌금	\$1,604.00
교무금	\$5,970.00
교무금(크레딧카드)	\$4,250.00
특별헌금	\$200.00
2차헌금	\$0
<b>합계</b>	<b>\$12,024.00</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7월 29일(수) 오전 6:15-6:45 | 8월 1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윤원진 신부님의 강의 '위대한 성인' (위대한 교회학자들 2편)

※ [www.dc1310.com](http://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7월 30일(목) 오후 5:00-6:00  
7월 31일(금) 저녁 8:00-9:00  
8월 2일(일) 오전 6:00-7:00



- 특집: 황창연 신부의 행복 특강 - 자신 겨안기 2B
- 걸어서 만나는 신앙의 숨결 - 배론성지

### 기도해 주세요

####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정맹금(테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제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겸(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고틸순(젼마),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수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김성례(안나), 이영민 (다윗), 한양수 (스테파노)